中정부, 불교·도교 상업화 금지령

시진핑 정부 11월 24일 발표
부패행위 방지 명목


중국이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 · 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렸다. 자료사진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려 불교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11월 24일(현지시간) 11개 부처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불교와 도교 상업화 문제 관리 진일보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 이라는 통지문을 올렸다.

통지문은 "심각한 상업화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정상적 종교활동의 질서와 불교와 도교의 청렴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해치고 회색거래 등 부패 행위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찰과 사원 등 불교 · 도교 활동 장소를 투자하거나 빌릴 수 없고, 주식제나 합작, 배당제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찰과 사원에 딸린 주거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사찰과 사원 건립에 기부금을 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교나 도교 이름을 빌어 행사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향불을 피우는 등의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비(非)종교단체와 비종교 학교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성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안된다.

특정 업종 협회나 상회 또는 회사가 불교나 도교를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가짜 승려 등을 고용해 종교활동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안된다. 불교나 도교 활동장소를 소수인에게만 개방하는 장소로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지침도 있다.

2015년 말 공식 집계된 중국내 사찰 수는 3만 3000여 개다. 이번 통지문과 유사한 문서가 2012년에 10개 부처에 의해 발의됐지만 종교의 상업적 행위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중국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즈펑 종교전문가는 "불교와 도교는 역사와 전통 때문에 중국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교 상업활동이 자선활동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상업시대 불교와 도교와 상업화 난맥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2013년 산시(山西) 우타이산(五台山)에 있던 불법 사찰이 폐쇄된 사례 등 문제점을 짚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결과적로 지방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절에 스님이 없고 돈 받는 판매원만 있다'는 지적을 듣는 중국 불교 사찰의 현실 탓이다. 각종 상업활동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소림사가 특히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종교 상업화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내부적으로 규율을 느슨하게 한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들의 신앙 수요를 비즈니스로 보고 사찰을 일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외부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객원기자

日, 부처님 가르침 아래 하나 되는 종파와 승속

일본 사가현 쵸겐지 사찰서
여러 종파 스님, 신도 함께
문법회 · 독서모임 등 가져


일본 쵸겐지 사찰서 여러 종파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져 법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쵸겐지 공식홈페이지

일본에 여러 종파의 스님 · 신도들이 함께하는 야간법회가 인기다.

일본 일간지 '츄카이 일보'는 11월 22일 "평일 야간에 여러 종파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법회가 있다"고 사가현 나카하마시 정토진종 쵸겐지(長源寺)사찰의 문법회(聞法ø)를 소개했다. 문법회는 예불의식을 축소하고 법문을 주로 듣는 법회다.

쵸겐지는 수십 가구만 등록돼 있는 소규모 사찰이다. 하지만 이 사찰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설법이 명쾌하고 정열적인 것으로 알려진 우류 타카시 스님을 강사로 4년 전부터 문법회를, 2년 전부터 불교 서적을 읽는 독서모임을 매월 1회씩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법회와 독서모임은 평일 밤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늘 3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츄카이 일보'는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종파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 많은 종파가 혼재하는 일본 불교에서 좋은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법회가 시작된 데는 사찰 신도의 힘이 컸다고 한다. 쵸겐지의 신도인 시미즈 미사시게(67)가 "정토진종에서 매일 독송하는 '정신게(正信偈)'의 뜻을 알고싶다"고 쵸겐지 주지 미야오 스님에게 공부모임을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신도들에게 정신게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만든 법회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법회를 진행하는 우류 스님은 "불법을 배워도 불행과 곤란한 일은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받아들임'이란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라고 범부의 존재양상을 설명했다.

신도 타게다 코타로(69)는 "법회에 참가할 때 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불법이 깊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 종파의 신도지만 함께 법문을 듣는 카와자키 미네오(68)는 "인생에선 일반적인 상식이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 법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참가 의의를 밝혔다.

다른 현에서부터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중인 이시이 호슈(43)스님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심지가 올곧다. 그건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우고 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모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쵸겐지는 이 외에도 여신도만을 위한 모임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매월 세 차례 월례법회를 갖고 설법을 한다. 미야오 스님은 "이것이 절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부처님 법으로 모두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운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교황청 "불교국가와 다리 역할 원해"

프란치스코 교황, 미얀마 방문에서 로힝야족 언급 회피 해명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곤공항에서 미얀마 어린이들의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얀마 방문에서 '로힝야' 언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30일 AP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얀마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젊은 가톨릭 교도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양곤 성모마리아 대성당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과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황이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면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힝야 사태의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인종청소라고 비난한 일에 대해 교황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은 불교국가(미얀마)와 다리를 놓는 것을 원한다"며 "교황은 미얀마 가톨릭교회가 그에게 건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미얀마 가톨릭교회는 방문기간 중 '로힝야'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 것과 태도를 신중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얀마 대중 앞에서 교황의 외교적 스탠스는 과거에 그가 말한 것과, 사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박해'라고 언급하며 인권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커리어우먼에서 행복한 비구니로

부탄 최초 서양 비구니 엠마 슬레이드 '화제'



미국 주간지 '타임'은 11월 28일 사치를 좋아하던 고 연봉 금융인에서 비구니로 변신한 엠마 슬레이드〈사진〉를 전격 인터뷰하고, 현 시대에 중요한 가치와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10억의 자산, 명문대 졸업, 수 많은 사치품, 촉망 받던 전문직.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구니의 삶을 택한 엠마 슬레이드는 오히려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고 웃어보였다. 엠마는 부탄의 최초 서양 비구니다.

고가의 '아르마니' 가방과 구두를 모으는게 유일한 취미였던 엠마다. 그녀는 1997년 인도네시아 여행중 느닷없이 무장 강도를 만났다. 이 사건이 그녀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엠마는 "당시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무상함과 소유의 덧없음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엠마는 히말라야로 여행을 가게 되고, 그길로 부탄 서양 비구니 1호가 됐다.

엠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물질에 집착했던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가 알게됐다"고 삶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타임'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부는 불교 바람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멋진 직장이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다"고 의미를 더했다. 박진형 기자

사찰신도 관리프로그램
GM SOFT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 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